

말씀자료

< 인사말씀 >

□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.

-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

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.

-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

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님,

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위원장님께

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.

□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

현장과의 소통과 함께 부처간 협업으로

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.

- 이를 위해 그동안

농촌 일자리 문제부터 전전한 온라인 채용시장 형성,

건설현장의 법치 확립,

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등

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*하였습니다.

* ▲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('22.11월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▲ 도-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('23.1월, 농림축산식품부)

▲ 건설업 임금체불·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('23.9월, 국토교통부)

▲ 구인·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 강화('23.12월, 개인정보보호위원회)

□ 저는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분들께
고용과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
부처간 벽을 허물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

○ 오늘 그 첫 단계로써
고용·금융 연계 강화를 위한
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□ 이제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
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.

□ 첫째, 서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
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
심층상담을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* 등을 지원하면서,

* 서민금융이용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허용

○ 직업훈련을 희망한다면 직업훈련비용 자부담을 면제*하여
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내일배움카드 참여시 훈련비 자부담 면제(15~55% → 0%)

□ 둘째, 청년분들은 최근의 채용트렌드에 맞춰
일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
취업역량을 강화해 드리고,

- 구직단념청년 등에게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*하여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* (예)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하여 구직의욕 고취

□ 마지막으로,

고용-금융간 원스톱 복합상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현재 금융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+센터를 7개소에서 올 상반기 내 두 배 이상 확대하고,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 연계·협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-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, 온라인으로도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

□ “정부기관간 협업으로

민생과 국민을 위해 함께 고민한다면
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” 라고
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.

-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지속 협업하고,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고 행동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< 마무리 말씀 >

- 그간 우리부는 복지수급자, 자립준비청년, 위기청소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하여 자립준비전담기관,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같은 부처 간 협업체제를 토대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정책을 세심히 다듬어 나가겠습니다.
- 더 많은 국민분들께 통합적인 고용-금융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고용-금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사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